

성규탁·김동배·은준관·박준서 (199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9. 247-296.

손병덕 (2004). “전국복지시설의 운영주체 분석에 의한 종교 교단별 사회복지사업활동 현황조사 그리고 한국 교회사회복지의 과제.” 『총신대논총』 . 24. 421-461.

손병덕 외 (2010).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이해와 실천.” 학지사.

안대현 (2011).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대전지역 침례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사회사업』 . 16. 91-129.

유장춘 (2003). “교회사회복지활동의 결정요인과 그 활성화를 위한 제언.” 교회사회사업.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 1. 145-181.

이만식 (2004).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태와 활성화과제.” 『장신논단』 . 22. 493-516.

최성재·남기민 (2010). “사회복지행정론.” 나눔출판.

최원규 (1996).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 자원봉사 참여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18&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18&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Bryant, W.K., Jeon-Slauter, H., Kang, H. & Tax, A. (2003). “Participation in philanthropic activities: Donating Money and Tim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6. 43-73.

Abstract

**The present state of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its implications**

**-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

Sangmoo Lee(Pyeongtaek University)

The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present state of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in Gyeonggi province and suggest related implication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mong 144 churches in the survey, 120(83%) churches participated in social welfare activities. In addition, as the total budget of church increased, churches were more likely to do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spend more budget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On the contrary, the ratio of budget for social welfare to total budget decreased when the total budget of church increased.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mainly rely on the general avenue of church and low-income family and senior citizens were main interest groups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114 churches' budget for social welfare sum up to 3 billion 800 million Korean won and it took up 8.74% of the total budget. Churches evaluated their social welfare activities positive in general and intended to do social welfare activities more actively. However, many churches had not made plan or had systemic evaluation for their social welfare activities.

**Key words :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budget, interest group, planning, evaluation**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안 연구47)**

이형진(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한국의 기독교가 1980년대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1990년 이후 성장이 눈에 띄게 감소하다가 최근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교회의 생존적 차원에서도 문제의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진단과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도덕성 등 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정적 영향력을 끼쳤으며, 사회복지 실천 등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영향력 역시 매우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상실은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과 인적, 물질 자원들을 대사회적으로 소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이지 못하였으며, 지극히 초보적인 자선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있다.

기독교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과 사회가 교회와 기독교에 기대하는 요구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사명과 기대에 부응해 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역사회복지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례들과, 중소형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함으로 지역사회복지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비전문성, 비본질성에 따른 부작용, 교회 조직과 시스템에 갇힌 비효율성 등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47) 이형진,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안 연구'(2007,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를 요약 수정하였음.

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구나 일부 미자립 교회에서 교회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들로 인하여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 교회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돕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교회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1. 교회와 사회의 관계

하나님은 아담의 독처하는 모습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아담과 함께 살아갈 하와를 만드실 것을 작정하셨다. 바로 이것이 사회 창설의 동기이고 사회가 출범되는 순간이다.<sup>48)</sup> 최초의 사회는 에덴동산에서 출발하였으며, 에덴동산은 인류 최초의 지역사회 공동체였다.

지역사회는 인간이 생존을 위한 결속과 협동의 필요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래적 사회성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회집단이며, 인류의 전 역사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협동적 삶의 형태로 지속되어온 인간의 고유한 생존양식이며 삶의 토대이다.<sup>49)</sup>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구체적인 삶의 터전, 곧 특정한 사회나 지역사회 속에서 생존하는 개체 인간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인간 구속의 역사를 펼쳐 나가고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역사와 사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50)</sup>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의 반석위에 세워졌으며,

48) 이재서, “사회봉사의 신학적 의미”, 세계밀알연합회 편,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pp. 56-57.  
49) 이연, “지역사회 중심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기독교사회복지총론(서울: 신홍메드사이언스, 2004), pp. 411-412.  
50) 박종삼, “신학교, 기독교 대학의 사회복지(사회사업)교육 정립의 과제”, 한국기독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개교 70주년 기독교 사회복지 학술심포지엄(전주: 한일신학교 기독교 종합연구원, 1993), p. 139.

지역사회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어떤 거점도 있을 수 없으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참 사명을 망각한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를 책임져야 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의 개념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였다. 즉 진정한 이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있을 때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6)이라고 하신 것은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의 대상인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고,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한다.<sup>51)</sup>

기독교에서는 사회가 단순히 이론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고 행동하는 환경이며, 우리가 고치고 바꾸어야 할 “사명의 대상”이다.<sup>52)</sup>

교회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이념이 성경의 중심 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임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성경의 중심 사상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교회이다.

## 2.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문제점

### 1)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문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목회자를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목회자의 인식과 행동이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과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3)</sup>

51) 차기천,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봉사프로그램 가이드(서울: 좋은생각사, 1994), p. 25.  
52) 손봉호, “기독교와 사회”, 세계밀알연합회 편, op. cit., p. 21.  
53) 최무열, “한국교회와 사회복지”(서울: 나눔의 집, 1999), p. 163.

목회자의 실제적인 사회복지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sup>54)</sup>에 의하면, 목회자의 실제적 사회복지 참여 내용은 설교, 사회봉사 권장, 예산 증액에 대한 노력, 지역복지활동에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첫째로 사회복지활동을 주제로 하는 설교횟수에 있어서 거의 매주하는 목회자는 0.7%, 월 1회 이상 하는 설교자는 12.5%에 불과하였다. 1-2개월에 한 번씩 하는 목회자는 36.6%, 일 년에 1-2회 정도 하는 목회자가 50.5%에 달하였다. 둘째로 교인들을 향한 목회자의 사회봉사 권면은 매우 권장하는 목회자가 3.6%, 약간 권장은 19.4%, 별로 권장하지 않음이 59%, 전혀 권장하지 않음이 18%나 되었다. 이는 목사들이 목회가 예배 중심, 진도 중심으로써 봉사에 대한 강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추정하게 된다. 세 번째,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활동 항목의 예산 증액 노력에 대한 질문에 매우 노력한 목회자가 3%, 조금 노력 26.5%, 별로 노력하지 않은 목회자가 57.9%, 전혀 노력하지 않음도 12.6%나 되었다. 이는 목회자가 가진 사회복지활동 인식이 교회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55)</sup>

목회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는 교육과 훈련의 경험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목회자의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에 대한 실태조사<sup>56)</sup>에 따르면,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대학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목회자는 10.9%였고,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활동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목회자는 17.3%, 그리고 총회나 노회에서 사회봉사 관련 세미나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목회자는 21.6%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 경험이 있는 목회자는 모두 43.8%로 훈련의 경험이 전혀 없는 목회자(56.2%)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교회와 사회를 이원적으로 파악하여 교회는 전도에만 전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된 후에 지역사회복지에 관여해야 한다는 태도이며, 셋째는 사회복지활동을 전도의 한 방법으로 보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들은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참여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

54) 유장춘,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의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 71.

55) 김진상, "교회의 지역사회복지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5), pp. 32-33.

56) 유장춘, op. cit., p. 73.

라서 이러한 목회자들은 교회의 자원을 지역사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참여를 소극적이게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교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보다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개교회의 부흥에 치중해 왔다. 또한 목회자들이 선교와 사회복지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강조하지만,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은 등한시 하였다.

## 2)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의 동기와 목적의 문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실천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보편적인 사명이다. 대부분의 교회와 신도들은 진정한 신앙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불우한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다. 첫째로 기독교 사회봉사를 교회성장의 수단이나 도구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둘째로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니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로 교회가 지역사회에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사회봉사를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sup>57)</sup>

## 3) 전문인력과 조직의 문제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동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의 발굴 또는 조직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주도로 진행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목회자의 능력이나 지식이 제한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에 한계를 가질 수도 있으며, 목회 일정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할애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프로그램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조사, 기획, 진행, 평가, 조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57) 김한옥, "기독교 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서울: 실천신학연구소, 2004), p. 452-453.

교회 내에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인이 교회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할 곳을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 3.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안

#### 1)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향성 제고<sup>58)</sup>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주체로서의 교회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지역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표를 재확인하고, 지역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극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교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일 때,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와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교회공동체들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책임이며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사회는 곧 하나님 나라이다.

또 교회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우월의식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일방적으로 봉사한다는 시혜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교회가 지역의 일원이라는 자각 속에서 교회에 대한 지역의 기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화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교회는 지역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지역사회복지사업이 복음전도와 함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지역사회와 상호협력하고 보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8) 전광현,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007), pp. 419-421 요약

#### 2)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사업선정

교회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교회가 속한 지역의 모든 복지 분야에 개별 교회가 접근하기에는 교회의 자원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지역사회 욕구조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욕구조사는 지역의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경로당 등을 통해 예비 정보를 수집하고, 또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체계적인 욕구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나, 교회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사내용은 교회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당회와 유관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교회에서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목회자는 교회 구성원 전체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또한 교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수집되고 논의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만든 조직에 위임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회는 보고된 사업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안에 따라 공동의회에 보고 한다. 교회에서 위임받은 조직은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한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3)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

개별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직접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사업의 전문 인력과 상당한 재정이 요구되므로,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교회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이유로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사업을 교회의 성장 이후로 미루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경우, 교회는 복지기관의 전문성과 재정을 활용할 수 있고, 복지기관은 교회의 인적자원 등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시설) 중 지역주민 이용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주간보호시설, 경로식당, 장애인독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청소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청소년) 쉼터, 점자도서관, 각종 상담소 등이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함에 있어서 개교회 주의를 탈피하고 지역 교회와 먼저 연합하고, 연합된 지역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 또는 지역 교회와 연계하는 결과로 기대되는 것은 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뿐 아니라, 복지수혜자에 대한 중복지원 등의 과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4) 교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복지사업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회 내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전문인력 확보이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양육된 자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교회의 이념과 목표에 동의하고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교회의 시설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을 위하여 교회가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회간의 일체감이 형성되는 좋은 효과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쉽게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의 장이나 결혼예식, 지역 내 어린이집 혹은 각종 학원의 발표회장으로 대역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주도적으로 교회 시설을 활용한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경로잔치, 무의탁 노인 또는 독거노인 생일잔치 등을 교회에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시설을 장기적으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한다면, (장애인, 노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경로식당, 청소년공부방, 도서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 자립지원시설, 각종 쉼터, 어린이집, 노인학교, 상담실 운영 등의 사업이 가능하다.

교회의 시설개방 없이 인적자원만 활용하여 지역복지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대청소, 지역 노인 나들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방문, 지역공동시설(놀이터 등) 보수, 지역신문 제작, 장애인가정 편의시설 설치, 노후주택 수리 등의 사업 등이 가능할 것이다.

#### 5) 사회복지법인 설립 또는 사회복지기관 운영

일부 대형 교회들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법인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교회의 복지사업이 공신력을 갖추게 된다. 또 사회복지법인은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엄격히 교회와 별개의 단체가 된다. 예산을 별도 관리해야 하며, 법인의 결정권은 교회가 가지지 않고 법인 이사회가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설립된 법인이 교회의 통솔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정부에서 수탁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직원채용 시에도 종교적인 계약을 둘 수 없으므로, 교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설립 이념과 목적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개별 교회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총회에서 설립된 법인을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예장통합의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기장의 한기장복지재단, 감리교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구세군의 구세군복지재단 등이 있다. 이들 총회산하 사회복지법인들은 전국적으로 각각 60개소에서 100여 개소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법인 사무국의 적은 인력으로 많은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되었

을 때, 1차적인 책임은 시설운영자에게 있으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총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에게 있다. 그러므로 총회 사회복지법인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총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소속 시설들을 관리·감독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 4. 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 1) 씨앗 심기(요 8:7) - 장애아동주일학교 설립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연건축면적, 직원 수, 연예산 등 외형적 측면 모두 전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관이다. 이런 큰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법인이 불과 2년 전에 설립된 신생 '사회복지법인 돕는 사람들'이다. 안양시에서 신생 법인에게 연간 예산 65억원에 이르는 복지관을 수탁운영케 한 것은 법인의 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해 온 평촌새중앙교회(예장대신, 박중식 담임목사)이기 때문이다.

평촌새중앙교회는 1983년 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이며, 1998년 장애아동주일학교(사랑부)를 설립하여 현재 아동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약 100여명의 장애 학생과 교사가 주일학교 뿐 아니라 토요일 '꿈토'(꿈이 있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새중앙 장애인상담어린이집을 설립하여 2013년부터 경기도 인건비지원 장애인상담어린이집으로 발전하였다. 즉, 평촌새중앙교회는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하게 된 씨앗을 1998년부터 심고 가꾸었던 것이다.

##### 2) 성장하기 - 법인 설립

평촌새중앙교회는 UN NGO 비영리 단체인 I.D.F(International Diaspora Foundation) 구호재단과 협력하여 2009년 '사단법인 돕는사람들 IDF'를 설립하여 대복지원사업, 해외 아동결연사업, 해외 지역개발사업, 해외 의료지원사업 등을 실천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하여 2011년 '사회복지법인 돕는 사람들'을 설립하여, 2012년 안양시로부터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하였다.

#### 3) 새로운 도전 -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 ① 수탁운영 결정

교회에서 법인을 통하여 대규모 복지관을 수탁운영 공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8년부터 장애인관련 사업을 직접 실천한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이면서 또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것은 교회의 예산과 인력으로 교회 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다른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사회복지법인 돕는 사람들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탁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

##### ② 교회의 시설운영 원칙

첫째, 교회는 철저히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를 위하여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정신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여 복지관 관장과 핵심간부로 임명하였다.

둘째, 교회는 부정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다. 교인들의 인사청탁을 비롯하여 복지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여 관장에게 완전한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종교활동 참여나 교회 출석, 헌금(십일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셋째, 교회는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연간 최고 수준의 법인 전입금 지원, 복지관 사업을 교인들에게 홍보하는 공휴일의 날 행사, 교회 내에 복지관의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판매대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 ③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운영 원칙

첫째,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강 같이'(암 5:24) 운영한다. 즉 복지관의 인사관리, 사업평가, 예산편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한다.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운영

은 결국 직원들과 이용인들로부터 불만을 초래하게 되며, 결국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부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둘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운영한다. 우선 복지관에 적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사랑이다. 이를 반영하여 복지관의 사명(Mission)을 “섬김의 실천 + 사랑의 실천 ⇒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으로 정했으며, 복지관의 비전을 이용인(고객)과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섬김의 복지관, 전문성을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의 복지관, 존중으로 소통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로 정하였다. 따라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핵심가치는 이용자(고객) 중심, 전문성, 섬김, 사랑, 존중, 소통이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막 10:43)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범을 실천한다. 관장과 중간관리자들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복지관이다. 관장과 중간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직원들이 장애인과 이용인, 실습생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복지관이다. 대청소, 창고 정리 등 굵은 일에 관장과 간부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복지관이다. 관장실 청소를 직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관장실 손님 접대 등은 가급적 관장이 직접한다. 관장과 간부들은 차량 이용시 직원들이 기피하는 차량을 우선 사용한다. 또한 이용인과 직원들의 의견을 겸손하게 경청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복지관의 서비스 실천정신은 ‘최고의 복지를 최선의 서비스로’이다.

셋째,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벧전 2:12)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한다. 복지관의 제정, 인사, 후원 등을 공개하고, 적법하게 사용한다.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법인 감사, 외부 감사를 적극 요청하여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한다. 정직한 운영은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된다.

##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안 연구 토론

박은희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1. 로댐복지재단 및 만덕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재위탁 시 심사내용>

<사회복지법인 로댐복지재단 연혁>

#### 법인 위탁 추진 배경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이

서 보았느니라

1987년	덕천교회 불우이웃돕기 추진위원회 발족
1998년	무료급식센터 설립
2003년	덕천노인대학 개교(2,000명 재적)
2005년 1월	사회복지법인 로댐복지원 설립위원회 발족
2005년 10월	사회복지법인 로댐복지원 설립허가
2005년 12월	로댐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설치신고
2006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시설 지정
2007년 9월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수탁
2009년 4월	로댐노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2009년 7월	만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소
2009년 10월	로댐직업재활센터 설치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 9월에 부산 복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로댐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5년간 위탁기간이 끝나고 작년 8월에 재위탁 심사 시 브리핑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기독교의 기본 사명이므로, 교회가 재산을 출연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을 위탁받는 것이 타당함을 표현하였습니다.

### 2. 부산의 사회복지관 운영 주체 현황(종교적 측면)

부산에는 53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 세칭 종교법인(여기서는 특정 종교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함)에서 운영하는 곳이 19개소이며, 불교 10개소, 천주교 5개소, 기독교 3개소, 원불교 1개소입니다. 1990년대 이후 정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하는